

Baroque직물에 나타난 floral 패턴의 조형성

이 선 화 · 권 영 숙

동주대학 토탈패션계열 교수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Figuration of Floral Pattern of Baroque Textiles

Sun-Hwa Lee · Young-Suk Kwon

Professor, Dept. Total Fashion, Dong-Ju College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Busan National University

(2002. 2. 8 투고)

ABSTRACT

The shape of floral pattern in the period of Baroque could be divided single, bunch and vine. The style of representation was stylized, abstract and realistic, the most of style was stylized. The type of composition was fullness, independent and scattered.

Floral patterns were shaped simple and complex and components of design could be classified into flower and leaf, flower and fruit, flower and band, bunch of flower, flower and geometry, flower and pot, flower and animal, flower and crest. Kinds of flower were tulip, common marigold, lily, carnation, small bellflower, lotus, acandus leaf, pomegranate, strawberry, pine cone and abstract anonymous flower which were unfolded by repeat.

Characters of floral pattern were classical elegance, taste of royalty and lively and damask, velvet, brocade which made with gold and silver so, those were a very brilliant and gorgeous. Characters of design were illustrated plane style and stylization where developed arranged on front by repeat or perfect symmetric of vertical.

Art, costumes and textiles in this era were a very rich and colorful. The result of study on Baroque's floral pattern will be used to develop a various textile design and chance to be adopted classical pattern into aesthetic value in our time.

Key Words : floral patten(식물패턴), stylized(양식적), curved line(곡선),
taste of royalty(궁정취향), decorative(장식적)

I. 서론

최근의 패션산업은 디자인 향상의 일환으로, 섬유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텍스타일 디자인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 텍스타일 디자인은 상품의 품질 및 가치의 부가가치를 더해 주고, 보다 아름답고 창조적인 패턴의 선택은 패션 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주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직물의 표현성에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질적 향상에 주력하며 디자인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식의 다른 조형요소에 비해 텍스타일 디자인의 패턴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는 실정이다.

텍스타일 산업계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텍스타일 디자인의 주제 중에서 floral패턴은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폭 넓게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 시켜주며 애용되고 있고, 오늘날의 텍스타일 디자인에서도 70%~80%를 차지한다.¹⁾ floral패턴은 화려한 복식과 직물이 생산되었던 바로크 시대 직물의 텍스타일 디자인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시기의 텍스타일 디자인은 화가들이 직접 제작하기도 하여 예술작품으로서 생산되었으므로, 그 패턴의 미적 가치를 크게 인정받아 오늘날 텍스타일 디자인계에서 활용도가 높다.

그러므로 바로크 시대의 의상과 실내장식을 위한 직물을 대상으로 텍스타일 디자인에 표현된 floral패턴의 형식상의 특징을 고찰하고 미적 표현의 근저를 연결시켜 보는 연구는 과거의 텍스타일 디자인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대에 추구하고 있는 예술적 가치 부여와 고급화의 텍스타일 디자인 방향에도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연구해야 하는 오늘날의 텍스타일 산업계에 예술적 분위기를 잃지 않으면서도 고전적 패턴이 현대의 감각에 어우러져, 감성의 고도화에 따른 디자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시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은 바로크 시대의 예술양식을

바탕으로, 직물에 나타난 floral패턴의 형식적 특성을 살펴보고 디자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와 직물도록 및 floral패턴이 수록된 국내외에서 발표된 문헌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당시기에 가장 직물산업이 발달하고 화려한 직물을 생산하였던 이태리와 프랑스 문직에 의한 견직물 126점을 대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바로크의 예술양식과 직물

1. 예술 양식사적 배경

바로크(Baroque)는 서양 예술사의 한 시대이며, 바로크라는 용어는 스페인 말 바루카(Barrucca) 혹은 포르투갈 말의 바로코(Barroco)에서 유래된 것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형태가 불규칙한 진주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용어이며²⁾, 시기는 유럽의 약 17세기를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17세기의 직물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7세기의 유럽은 르네상스에 의해 싹튼 근대정신이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시대이며 과학의 발달과 인지의 발전으로 많은 발명,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현실의 물질 생활은 윤택하게 되고, 영국의 산업 혁명, 프랑스 혁명의 근원이 된 시기이기도 하다.

국가 세력은 왕의 절대 권력을 강화한 중앙집권 체제이고, 무한한 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한 상업력을 가지게 되었다. 절대왕정 체제는 국왕이 절대적인 위치를 갖게 됨으로서 모든 사회문화의 전반적인 것이 궁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크 양식은 궁정양식 혹은 절대주의 양식으로 불리운다. 17세기 후반, 루이14세(Louis XIV, 1643~1715) 시기에 이르러 절정을 맞게 된다.

경제는 봉건경제체제의 쇠퇴와 농업, 상공업발달로 자본주의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앙리4세(Henry IV, 1589~1610)는 농업을 장려하고, 도로와 교량을 개축하고 신설하는 한편, 파리에서의 사치품공업과 견직물공업을 육성하였다.

루이14세에 들어서는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재정개혁과 프랑스 공업에 치중하였다. 외국인 기술유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내공업의 보호와 육성에 힘쓰고, 수입억제와 수출증대 등으로 상업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직물산업은 유럽최고의 위치에 도달하고, 경제 부흥국으로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러한 부를 바탕으로 호화찬란한 베르사이유 궁전을 짓고, 예술을 장려하여 바로크 예술이 꽃 피우게 되었다.

바로크 예술은 반 종교개혁의 출현과 세력 있는 중산층의 등장과 함께 절대왕정 강화의 영향 그리고, 과학의 발달과 세계 탐험에 의해 자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바로크 시대의 예술작품들은 기묘한 다양성을 보인다. 장려하고 감각적인 풍요, 극적 효과, 생동감, 운동감, 긴장, 감정분출을 특징으로 하고, 긍정양식으로서 장중 취미를 미적 기반으로 하며 풍부한 활기, 힘찬 움직임, 강렬한 감정, 생명력, 복잡한 다양한 성격을 가진 현실주의적 경향이다.³⁾

바로크 양식의 특징은 비정상, 기괴감, 과도한 장식, 불규칙적이고 화려한 것, 정형화된 규칙이나 비례로부터 벗어난 것을 말한다. 즉, 장식이 지나쳐 현란하고, 부정확한 자연스러움·복잡한 형태·곡선적인 것이다.

바로크 예술의 대표적인 작품은 단연 베르사이유 궁전이다. 가장 호화찬란한 건물과 풍부한 실내 장식은 바로크 양식의 진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직선보다 소용돌이 곡선, 와선형의 조화와 묘미를 강조하여, 풍부하고 복잡한 장식문양으로 표현되고 있다.

장식적 요소는 벽면의 패널, 가구나 벽면장식의 타피스트리에서 그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가구의 구불구불한 형태나 곡선으로 된 복잡한 형태, 과다한 장식, 화사한 느낌의 장식은 소용돌이치는 와선형으로 표현하고 벽면이나 천장에는 회화나 조각, 타피스트리를 둘러치거나 당시 가장 값비싼 것으로 여겨졌던 거울을 장식하였다. 공식적인 행사장에는 돌이나 유색대리석을, 거실에는 판넬을 사용하는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⁴⁾

2. 바로크 직물의 특성

르네상스 이후 과학의 발달은 유럽 사회의 급진적 발전을 가져왔고, 대표적인 직물생산지였던 이태리의 베니스와 프랑스의 리옹은 유럽직물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되었다.

당시의 유럽 직물산업은 직물 제직법과 문양이 이태리에서 프랑스로 이어진다. 이태리 직물의 솜씨는 대단히 훌륭했고, 직물의 형태는 윤이 나는 비단 바탕 위에 양각이 이루어져 튀어나온 모습이였다. 직조의 구조라든가, 직물과 바탕의 관계, 보풀의 다양한 높이, 공단의 광택, 금실·은실의 광채 등에 특별히 주력하였고, 이러한 모든 것이 다양한 직물을 산출해 냈다.⁵⁾

프랑스는 이태리의 좋은 질의 실직물 산업을 이어받아, 최고의 복식과 직물 생산을 하게되었다. 초기에는 이태리 직물을 모방하거나 수입하고, 이태리 직공들에 의해서 직물공장이 세워졌다. 그러나, 곧 이태리의 영향은 퇴색되고 특징적인 자기나라 제품을 생산하는 등으로 프랑스의 직물산업은 활발하게 되었다.

그들은 금·은에 의한 금계직·은계직, 모든 종류의 문직물, 견사·금사와 은사로 꾸며진 것, 그리고 다양한 폭의 직물들을 생산해 냈다.⁶⁾ 금과 은을 섞어서 제직 한 특징적인 직물 생산은 이태리를 능가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 유럽에서 프랑스 직물을 구하려 오기 시작하였다. 직물산업은 날로 발전하여 직기의 수는 늘어가게 되고, 리옹과 같은 중심적 공장은 엄격한 조합의 규칙을 지켜야 했고, 주변의 작은 마을에 뽕나무를 심어서 견사를 생산하기도 하였으며, 금·은 비단모양의 직물을 짜는 기술자를 초빙하며 활기를 띄었다. 리옹의 직물은 외국에까지 수출을 하게 되고, 당대 최고의 호화로운 직물을 생산했던 고블랭과 오비송 등의 공장을 중심으로 직물산업이 번창해 나갔다. 프랑스의 견직물 공장은 의복용을 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궁전에 벽 판넬, 벽걸이 천, 그리고 실내 장식품을 공급해 주었다. 또, 성이 주력으로 전환되면서 벽화가 사라지게 되고, 타피스트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수요가 급증했다. 이러한 변화는

벽화에 종사하던 예술가들이 직물디자인 분야에 참여하게 되고 귀족들의 저택에는 벽장식이 둘러쳐졌고, 그들의 후원으로 직물산업은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이때 텍스타일 디자인의 주제가 종교중심에서 일상 생활적인 것으로 옮겨가게 되어 즉, 형식적인 것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새로운 주제들이 직물 디자인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많은 디자이너들의 역할도 직물산업을 발달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들로 인하여 아름다운 패턴, 창의력 있는 디자인이 생산될 수 있었다.

군주 귀족들의 사치한 생활은 직물산업을 눈에 띄게 발달시켰고, 생산과 기술이 향상되고 견직물 뿐만 아니라 모직물, 모와 실크의 교직도 개발되었다. 직물에서 패턴이 표현된 것은 주로 귀족이나 왕궁을 위한 것이었으며, 큰 꽃들로 장식한 직물들은 태양왕 루이 14세의 의복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과 특히 이 시기에는 베르사이유 궁전을 위한 직물 생산이 많았다. 장엄한 방의 휘장이나 등이 높고 팔걸이가 넓은 의자, 침대의 천정에 드리워진 직물이나 침대의 여닫이 막, 베드커버, 베개, 쿠션, 의자커버, 방석, 휘장직물, 테이블 커버, 벽걸이 등에 주로 사용하였다. 바로크 양식의 가구에 알맞은 웅장한 느낌의 스케일로 주문제작 방식으로 직조되었으며, 호화롭고 값비싼 직물이었다.

이 때 제작한 엄숙하고 풍부한 구성들의 특징은 호화로운 한 왕의 영광에 종속시키는 것이었지만 그 예술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

직조에 의한 바로크 직물은 루이14세의 통치기간 동안 리용에 직조기를 설치하려는 노력과 양잠업의 생성으로 직물산업의 발전을 고무시켰다. 당시의 문직기를 사용한 패턴 실크 직물은 다마스크, 벨벳, 브로케이드 등이다.

다마스크는 수자직이 변화된 조직으로 시리아의 수도 이름에서 기인된 듯하다. 이 직물은 광택이 없는 것과 광택이 있는 표면의 차이로 효과를 나타내며 주로 실내장식을 위한 직물로 사용되었다. 벨벳은 섬세한 질감을 가지며 색상의 다양함으로 우수한 직물이다. 매우 화려함을 볼 수 있고 베니스, 플로렌스의 것이 유명했다. 브로케이드는 문양을 새겨 넣어 짠 벨벳으로 리용의 직물공장에서 많이

생산되었으며, 고급스럽게 여기며 제의, 군주 귀족들의 의복과 궁정의 실내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들 직물의 특징은 다양한 기술의 발달과 금사와 은사를 섞어 제작한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직물 생산으로 인하여 장식적 효과는 극도에 달했고, 무거운 느낌의 직물이 대부분이다.

III. floral패턴의 조형성

패턴이란 반복된 문양의 하나인 조형단위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양은 개념상으로 모티프와 패턴으로 나누는데 모티프는 문양을 이루는 기본 단위의 형태이고, 패턴은 모티프가 모여서 이루는 문양의 전반적인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바로크 양식은 루이14세의 집권이 절정에 달했을 때, 즉 17세기 후반으로 루이14세가 유럽직물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행사하였던 시기를 말한다.⁷⁾ 이 논문에서 언급하는 전기는 루이14세가 등용하기 이전을, 1660년 이후를 후기라고 지칭한다.

직물사 도록 및 서양복식의 유물, 회화자료에서 수집한 floral패턴 126점을 대상으로 유형별 분류와 구성요소 및 디자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floral패턴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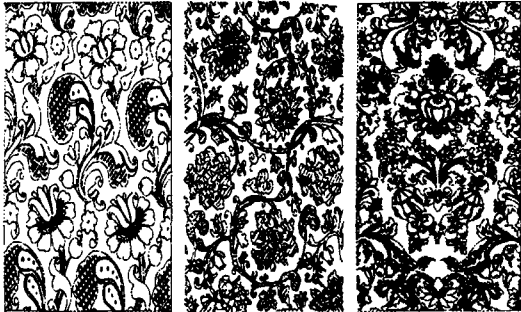
1) 형태별

형태는 조형예술의 형식적 요소들 중의 하나로서 점, 선, 면, 입체라는 형태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형은 사물의 생긴 모양, 생김새를 말하는 것으로 디자인의 기본요소이며, 특히 윤곽을 의미한다.

수집한 floral패턴 126점은 형태에 따라 독립형, 당초형, 다발형 세 가지로 분류되었으며 <표 1>과 같다.

<표 1> floral패턴의 형태에 따른 분류

형태	유니트형 (단위형)	아라베스크형 (당초형)	다발형 (부케형)
출현율(%)	61.1	13.5	25.4



<그림 1> 유니트형(단위형) <그림 2> 아라베스크형(당초형) <그림 3> 부케형(다발형)

단위형은 하나의 유니트가 단독으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바로크 시기의 floral패턴은 주로 꽃과 잎, 꽃과 잎·과일 등을 모티프로 하여 하나의 단위를 만들어 반복 전개하는 방식의 단위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17세기 전반에 걸쳐서 복식용으로나, 실내직물에서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형이며 크고 대담한 패턴은 단조롭고 단순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주로 석류의 모양을 한 것이라든가, 튜울립형을 소재로 한 구상적인 꽃을 소재로 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하나의 유니트를 반복 사용하여 바탕을 거의 채운 전면배치를 하고 있다. 같은 모양과 크기는 다소 지루함을 줄 수 있으나 윤곽선을 울룩불룩한 곡선으로 처리하여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율동적이면서 경쾌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당초형은 C자형, S자형의 넝쿨가지에 꽃과 잎이 달린 형으로, 좌우대칭의 곡선적 구성인 아라베스크형이라고도 한다. 주로 큰 곡선을 활용하여 여유로우며 움직이는 듯, 소용돌이치듯 힘이 있고 세련되어 보인다. 르네상스 시기의 굽이치는 듯한 사선 넝쿨에서, 곡선이 더욱 휘게 되어 C자형으로 전환되었음을 볼 수 있다. 유기적인 C자형의 구성은 주로 꽃의 줄기나 잎의 모양이 여러 방향으로 이리저리 꼬인 상태의 곡선적이고, 가지 등은 한층 더 활모양으로 휘어 가는 경향으로 꽃을 중심으로 한 구

도가 대부분이다.⁸⁾ 전체적으로 율동감을 지니면서 넝쿨선의 굵기와 곡선의 크기에 변화에 따라 율동적이고, 역동적이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표현되고 있다. 독립형이나 다발형에 비해 구성상의 특징으로 약간의 여백을 보이고 있다.

다발형은 꽃과 잎들이 함께 풍성하게 묶인 매우 화려한 구성으로 표현된 것의 부케형을 말한다. 17세기초기에 까지 많이 나타났던 평면적인 다발형은 양식화되어, 풍성하고 섬세하기보다는 간결한 표현을 하고 있다. 입체적인 다발형은 17세기 후반에 주로 출현되는 것으로 섬세하게 표현되어 벽걸이, 벽장식 등 실내직물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다. 모티프는 대부분 크고 대담하게 나타나고, 리본으로 묶여 있거나 꽃병에 꽂아 우아하게 표현하였다. floral패턴은 화려하고 섬세함으로, 때로는 과잉 장식적으로 복잡하기 조차하여 당 시대 화려했던 귀족문화, 군주체제를 반영하는 거대한 느낌, 권력을 상징하는 강렬한 감정, 약동적인 힘의 동세를 가지게 한다.

2) 연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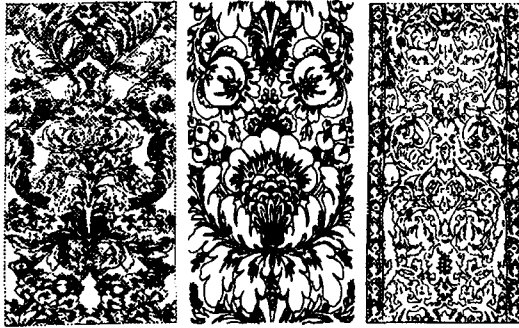
바로크 시기의 floral패턴에 사용된 연출은 사실적, 추상적, 양식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출현율은 표 2와 같다. 단순하고 도안화시킨 모티프가 바로크의 전 시기에 걸쳐 주류를 이루고 후기에 가서 사실적인 표현이 약간 나타난다. 이 같은 현상은 점차 나아지는 직조기술의 발달과 낭만주의 시대로 들어서는 로코코 양식의 여성적이고 섬세한 경향의 예술적 양식이 발견된다.

사실적 표현은 패턴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형태와 색상을 고수해야 한다.⁹⁾ 따라서 여기에서의 패턴은 사실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사실적 경향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7세기 말경의 사실적 표현은 섬세하고 정교하게 나타내고 모피, 비즈, 자수 등의 장식을 덧붙여 입체적이면서 화려함을 보여주며 로코코의 예술양식이 가미되고 있다.

추상적 표현은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사실적 아름다움보다는 특성을 강조하며 표현하였다. 이 시기의 floral패턴이 구상꽃의

<표 2> 연출에 따른 floral패턴의 분류

연출	사실적	추상적	양식적
출현율(%)	23	31	46



<그림 4> 사실적 <그림 5> 추상적 <그림 6> 양식적

종류보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추상꽃이 더 많았던 관계로 추상적 표현이 활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정확한 꽃의 종류를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석류라든가, 솔방울의 그 특징을 살려 변형하여 표현한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양식적 표현은 약화된 선을 사용하여 단순화시킨 것을 말하며, 초기에는 그 특징은 다소 덜 세부적이어서 둔탁한 꽃잎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후기에 들어서는 비교적 섬세한 곡선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평면적이고 단순함을 주기 쉬우나, 이 시기의 floral패턴은 그다지 단순하지 않으며 오히려 전체적인 느낌에서 동세, 운동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꽃과 잎, 가지 등이 가지는 특성과 바로크 양식의 과잉 장식, 즉 예술 양식을 배경으로 곡선미를 가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구도별

바로크 시기의 floral패턴은 직물의 전체를 메우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배치구도를 크게 분류해 보았을 때 충전형과 산점형, 독립형을 이루고 있으며, 출현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 구도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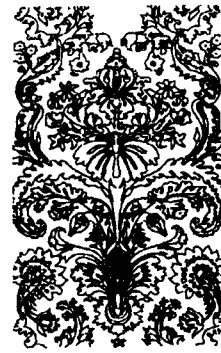
구도	충진형	산점형	독립형
출현율(%)	65.1	13.5	21.4



<그림 7> 충전형



<그림 8> 산점형



<그림 9> 독립형

충진형은 바로크 전 시기에 걸쳐, floral패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도이다. 직물 전체에 패턴을 가득 채우는 형식을 말하는데, 공간을 문양으로 가득 채우는 행위는 외계의 악의 있는 힘의 침입을 막기 위한 의도이고 인간의 내적 불안으로부터 생긴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¹⁰⁾ 또한 바로크의 과잉 장식적인 예술양식의 배경에서 창출된 호사스러운 직물을 선호한 까닭에 이 형식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진다. 여러 가지 반복배열 형식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패턴이 강조되고 화면을 채우는 형식으로 중후하고 화려한 느낌을 주고 있다.

산점형은 표면을 같은 단위 면적으로 나누어 그 안에 단위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 때 단위문이 한 종류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두 종류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가득 채우는 충전형에 비해 여백에서 오는 여유로움을 가지게 하고, 단순하고 평면적인 전개를 하고 있다.

독립형은 실내장식용, 벽장식이나 벽걸이에 많

이 나타나는 구도 형식이다. 충전형과 산점형에서처럼 단위문의 반복이 없으며, 좌우대칭의 엄격한 구도이다. 디자인이 연속되어 가는 관계가 하나의 동기만으로 만들어진 단일종 모양과 두 개의 동기로 만들어진 이중종 모양¹¹⁾의 두 종류가 있다.

floral패턴 126점을 대상으로 한 유형별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 floral패턴의 유형분류

		단위형	당초형	다발형
연출	사실적	9점	7점	13점
	추상적	22점	7점	10점
	양식적	46점	3점	9점
구도	충진형	59점	15점	8점
	산재형	12점	3점	2점
	독립형	21점	4점	2점

2. floral패턴의 구성요소

바로크 시기의 floral패턴은 다양한 형태의 표현 방법과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면서 유동성 있게 연결되어 있다. 이태리, 프랑스 견적물의 사진 126점을 고찰한 결과 floral패턴의 구성요소는 크게 단순형과 복합형으로 나누어진다. 단순형은 floral만을 소재로 하여 나타낸 것이며, 복합형은 floral과 다른 요소가 가미한 것을 말한다.

단순형은 꽃과 잎, 꽃과 잎·과일, 꽃다발, 꽃과 띠가 있고, 복합형에는 꽃과 단지, 기하학, 동물, 문장, 기타를 들 수 있으며 출현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 floral패턴의 구성요소

요소	단순형				복합형				기타
	꽃과 잎	꽃과 잎·과일	꽃다발	꽃과 띠	꽃과 기하학	꽃과 단지	꽃과 동물	꽃과 문장	
출현율(%)	32.5	25.4	10.3	3.2	6.3	5.6	5.6	4	7.1

바로크 시기의 floral패턴은 꽃과 잎, 줄기, 넝쿨, 씨, 봉우리, 수초 등의 소재를 포함하지만 대부분 꽃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되고 있는 꽃의 종류를 살펴보면 구상꽃과 초현실 꽃으로 분류해 볼 수 있고, 사용된 꽃의 종류에는 튜울립, 작약, 금잔화, 카네이션, 연꽃, 백합, 오랑캐꽃, 아칸더

스 잎, 석류, 딸기, 포도, 방울꽃, 영경귀 등이 발견된다. 그러나 정확한 꽃의 이름을 사용하기보다는 그 특징을 닮은 것의 유형으로 나누어, 튜울립형·작약형·석류형·솔방울형·아칸더스형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표 6>.

튜울립형은 이 시기에 많이 사용된 소재의 하나로 사실적, 추상적, 양식적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튜울립은 17세기에 경작된 새로이 나타난 꽃으로, 특징을 살린 다양한 형으로 표현으로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다. 주로 단위형의 형태이고 추상적, 양식적 표현을 하고 있다. 가지와 잎보다는 꽃을 강조하며, 꽃과 잎의 모양을 울룩불룩하게 처리하고 가지를 비틀고 교차시켜, 상당히 울동적이고 경쾌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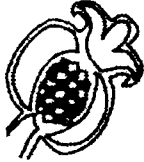








석류형은 바로크 이전시대부터 매우 주요한 소재로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풍요로움과 영원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최고급 품질의 소재에만 사용되던 것으로, 종교의식이나 귀족계급을 위한 복식의 패턴에만 사용하였다. 석류를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원래 석류가 잘 익어 벌어지는 형태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실적인 것보다는 변형된 것의 추상적인 것과 양식적인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솔방울형은 여러 개의 종린(種鱗)이 중앙의 축에 촘촘히 박혀있고, 전체적으로 종 모양이나 원뿔 모양을 이루고 있다. 석류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고, 때로는 석류의 변형된 모양을 느끼게도 하지만 석류에 비해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다.

잎은 아칸더스형이 가장 많이 사용된 잎 모양이

다. 큰 잎의 모양은 넘실거리듯 크고, 작은 곡선을 이루며 위 아래로 움직이는 듯한 울동감을 나타낸다. 정교하게 우아하게, 큰 잎 안에 가는 선으로 이용하는 등의 장식적 효과는 약간은 복잡한 듯 하지만, 큰 곡선의 활용은 유연한 느낌을 갖게 한다.

<표 6> 꽃 모양의 종류별 표현

	표현방식 분류	사실적	추상적	양식적
꽃	튜올립형			
	금잔화형			
잎	석류형			
	솔방울형			
잎	아칸더스형			

3. floral패턴의 특성

지금까지 문헌과 도판 자료를 통하여 바로크 시대의 예술양식과 floral패턴의 형식적 특징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바로크 양식의 특성의 결과로서 나타난 floral패턴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바로크 시대의 직물에 표현된 문양들 가운데

floral패턴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고전위주의 우아, 궁정취향의 장중함, 격렬한 생동감으로 정리하였다. 전반적인 특징은 단순하고 양식화된 커다란 꽃이 주류를 이루고 후기로 갈수록 크기가 다소 작아진다.¹²⁾ 또 곡선적이며, 화려하고 전면배치의 규칙·불규칙의 연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 고전위주의 우아

고전위주의 우아는 유기적 곡선의 화려한 꽃 모양과 파상선에서 정교하고 우아한 미를 발견할 수 있다. 부드럽고 자유로운 운동에 의한 동적인 이미지는 우선 S형의 구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줄기에 얽혀 있는 꽃과 잎은 바로크 풍의 장식과 맞물려 부드럽고 환상적인 경향을 보여주며, 선율적인 곡선미를 표현하고 있다. 또 리본으로 묶어 부케로 만든 장식적인 꽃다발은 우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적인 느낌의 구체적인 표현과 화려한 색채로 우아를 느낄 수 있다. 실내장식용의 직물에 나타난 floral패턴에서 크고 넘실거리는 듯한, 풍성하고 유기적인 잎의 울동적인 움직임에서도 우아를 창출한다.<사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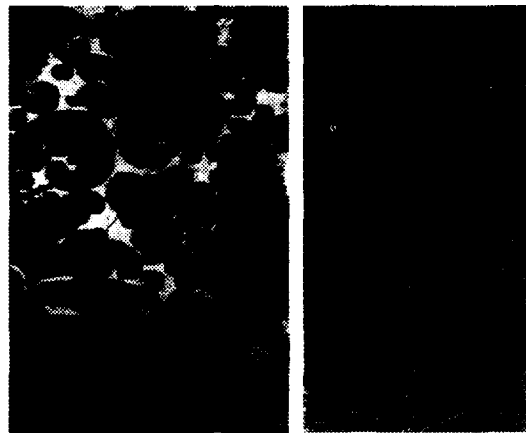


<사진 1> 벨벳, 140×53cm <사진 2> 벨벳, 92×66cm

2) 궁정취향의 장중함

이 시대의 floral패턴은 인간의 위엄과 지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니며, 루이14세의 양식적 특성, 궁정취향의 장중함을 표출하고 있다. 실물의 크기보다 훨씬 크게 표현된 커다란 꽃과 잎은 과잉장식과 호화롭고 풍부하게 표현하고, 한편 좌우대칭의 엄격한 구도로 장중함을 준다. 거대하고 장식적인 가구에 알맞은 크고 대담한 패턴은 힘을 가늠할 수 없는 무한한 군주의 권력을 상징하고, 궁정을 중심으로 호화찬란한 예술과 궁정취미를 복돋아 장엄하고 위풍이 당당한 표현을 위주로 하는 바로크의 예술성¹³⁾을 반영하고 있다. 장중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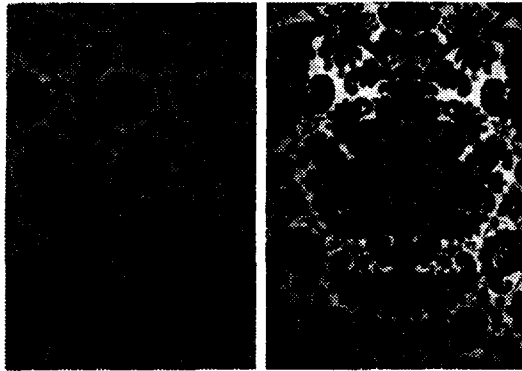
표현주의적인 경향의 과다 장식은 복잡한 형태를 띠며 섬세하거나 우아하다는 표현보다는 화려한 귀족적 권위의 상징을 그대로 표출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하려는 당 대 예술양식¹⁴⁾의 흐름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사진 3.4>



<사진 3> 벨벳, 180×54cm <사진 4>브로케이드, 307×64cm

3) 격렬한 생동감

바로크는 르네상스 양식을 기반으로, 다시 비약하여 자유롭고 힘찬 동세와 격정적으로 끓어오르는 감정의 생동감을 갖게 한다. 작은 꽃과 잎은 사실적인 면은 없고 둔탁하고 단순하지만, 울룩불룩하게 처리하고 가지를 이리저리 비틀고 꼬이게 하여 격렬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때로는 추상적인 모양이 활짝 핀 듯한 꽃송이 안에 문장을 새겨 넣은 패턴에서도 힘찬 동세를 보이며, 울동적이고 경쾌함을 갖게 한다. 굵은 넝쿨 가지에 움직이는 듯 얽혀 있는 꽃과 열매모양은 자유분방함을 보여 준다. 이것은 바로크 복식과 예술의 미적 기준인 자유로운 움직임·비대칭·부조화·극적인 요소 등의 미의 특성¹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사진 5.6>



<사진 5> 벨벳, 120×62cm <사진 6> 벨벳, 222×61cm

28.6%로 꽃을 강조하고 있었다. 꽃과 잎, 꽃과 잎·과일, 꽃다발, 꽃과 띠, 꽃과 기하학, 꽃과 단지, 꽃과 동물, 꽃과 문장 등으로 분류되었고, 배열은 반복적인 전개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꽃의 종류에는 튜울립, 금잔화, 백합, 카네이션, 방울꽃, 연꽃, 아칸더스 잎, 석류, 딸기, 솔방울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유형을 분류하고 고찰하는 과정에서 바로크 시대의 floral패턴의 특성은 유기적 곡선의 디자인에서 고전위주의 우아, 크고 대담한 패턴은 긍정취향의 장중함, 울룩불룩하고 비틀린 가지의 선은 자유

<표 7> floral패턴의 표현적 특성 및 디자인

분류	특성	표현특성	디자인특성
고전위주의 우아	화려한 꽃모양, 부드러움 안정적이고 우아하다. 여유로움, 흐르는 듯, 환상적	유기적 곡선, 사실적 표현, 리본, 커다란 아칸더스 잎의 형상	
긍정취향의 장중함	엄격함, 호화롭고 풍요로움, 과잉장식, 영원함, 추상적, 거대함	크고 대담한 패턴, 완전대칭 구도, 섬세한 표현, 초현실주의 꽃, 전면배치의 반복전개, 수직배열	
격렬한 생동감	간결함, 경쾌함, 동세, 단순함, 둔탁함, 역동적, 울동적, 정열적, 유동성	울룩불룩한 선, 평면적·양식적 표현, 비틀리고 꼬인 가지의 선	

IV. 결 론

본 연구는 현대인들이 애호하는 floral패턴의 근원이 발견되는, 바로크 시대 직물에 나타난 floral패턴 대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특성을 고찰한 것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loral패턴의 유형분류에서 형태별로는 단위형이 61.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발형 25.4%, 당초형이 13.5%의 순이다. 연출에 따른 분류는 양식적인 표현이 46%, 추상적인 표현 31%, 사실적인 표현이 23%로서 양식적인 표현이 가장 많았다. 구도별로는 충진형이 65.1%, 독립형이 21.4%, 산점형이 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바로크 시대의 floral패턴이 충진형이 많은 이유는 과잉 장식적인 예술양식의 배경에서 창출된 것으로 보아진다.

floral패턴의 구성요소는 단순형71.4%, 복합형이

분방함으로 격렬한 생동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재는 다마스쿠, 벨벳, 브로케이드 등에 금·은을 섞어 호화롭고 현란한 아름다움을 나타내었다. 디자인 특성은 전기에는 크고 대담한 꽃 패턴을 단순화시킨 평면적·양식적 표현이 주류이고, 후기에는 패턴의 크기가 작아지고 꽃 모양이 섬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하였으며, 유기적 곡선의 활용이 많았다. 전개형식의 구도는 전면배치의 반복전개를 하거나, 수직배열의 완전대칭 구도를 이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 고찰한 완벽한 조화미와 색채의 미묘함 아름다움이 내재되어 있는 바로크 시대 floral패턴의 표현 형식과 디자인 요소는 오늘날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로는 고전적인 패턴을 현대의 미적 감성과 접목시킬 수 있는 미적 특성과 이미지를 기저로 한 연구과제를 남겨둔다.

참고문헌

- 1) 이경순 (1994), 텍스타일프린트디자인, 서울: 현암사, p. 58.
- 차임선 (1998), 텍스타일디자인, 서울: 예경, p. 86.
- 2) 이항성 (1964), 바로크·로코코(조각, 건축, 공예), 서울: 문화교육출판사, p. 281.
- 3) 장분호 (1977), 서양미술사, 서울: 형설출판사, p. 169.
- 4) 배만실 (1975), 장식미술사, 서울: 이화여대출판사, p. 105.
- 5) 北村哲郎譯 (1976), Lyon, 織物美術館 第III권 東京: 學習研究社, p. 216.
- 6) 위의 책, p. 323.
- 7) 차임선, 앞의 책, p. 129.
- 8) 北村哲郎譯, 앞의 책, p. 155.
- 9) David (1980), Visual in Design, New York, p. 173.
- 10) 금기숙 재인용. 草薙正夫 (1970), 抽象과 感情 移入, 東京: 石波文庫, p. 125.
- 11) 北村哲郎譯, 앞의 책, p. 386.
- 12) Kax Wilson (1979), *A History of Textiles*, Westview press, p. 185.
- 13) 양희석 (1980), 예술철학,(중), 서울: 자유문고, p. 341.
- 14) 위의 책 p. 342.
- 15) 최수현 (1994), 복식의 미적 범주, 목식23호, p. 206.